

SKT, UAE 1위 통신사 이앤그룹과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 체결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키로**

**- 10월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에 전시부스 참여… 앞선 메타버스 기술 선보여**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0. 12]**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아랍에미리트(UAE) 1위 통신사업자인 이앤(e&)그룹과 중동 지역에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앤그룹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16개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CT 기업으로 에티살랏(Etisalat)그룹이 올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사명을 이앤그룹으로 변경하였다.

메타버스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앤그룹은 중동 지역에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에서 ‘이프랜드(ifland)’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KT를 낙점했다.

SKT와 이앤그룹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앤그룹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앤그룹이 고객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SKT에 제공하고, SKT는 이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 고객의 니즈에 최적으로 맞춘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도시나 건물을 메타버스 서비스 내 가상공간으로 만들거나, 중동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디지털 의상, 전용 아바타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현지 시장과 고객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SKT와 이앤그룹은 MOU 체결과 함께 중동 지역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 협의에 들어갔다. 양사는 이앤그룹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사용 경험이나 이용 행태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성을 검증해 볼 계획이다.

SKT와 이앤그룹은 이러한 협력의 첫 단추로 10월 10일~14일까지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GITEX)에서 메타버스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중동 지역 현지 기업과 고객들에게 한국의 앞선 메타버스 기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부스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배우이자 TV토크쇼 진행자인 사우드 알 카비(Saoud Al Kaabi)가 진행하는 볼류메트릭\*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앤그룹에서 직접 제작한 NFT를 선보인다.

*\*볼류메트릭: 100대 이상의 카메라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

Khalifa Al Shamsi(칼리파 알 샴시) 이앤 라이프(e& life) CEO는 “이번 SKT와의 파트너십은 그 동안 강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투자해 온 e&그룹 입장에서 중대한 진전”이라며, “이번 협력은 고객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혁신적인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이앤그룹과 파트너십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이앤그룹과 메타버스 뿐 아니라 다양한 ICT 방면에서 포괄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  Khalifa Al Shamsi(칼리파 알 샴시) 이앤 라이프(e& life) CEO(왼쪽)와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가 두바이 소재 이앤그룹 사옥에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이교혁 매니저(02-6100-3870)**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